조선적의 청년 리동일의 세번째 한국여행

"이렇게 12년이 지나면 1년을 한국에서 사는 셈이죠"

"조선적이 한국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제한 없이
한국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제도를 바꾸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선적으로 한국을 오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전례를 많이 만들면 제도를 바꾸는 데 힘이 보태진다고 봐요.

취재/ 곽미정

"재작년에 와서 한 달, 작년에 한 달, 올해는 3주. 오고 싶을 때 오지 못하므로, 이런 식으로 12년이 지나면 한국에서 1년 산 것과 같게 되니까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짠해지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은 올해로 세 번째 한국땅을 밟은 재일 2세 리동일(李東一, 29, 메이세이大 학생) 씨. 기자가 익숙지 않은 발음 때문에 '이동일'로 부르자 그는 '리동일'로 바로잡아 주었다. 동일 씨에게 한국은 오고 싶을 때 언제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한 번 오면 머무는 시간이 자꾸만 길어진다. 오고 싶을 때 한국에 오지 못하는 그는 조선적(朝鮮籍)이다.

모국방문위원회라는 곳

에 오기 위해 찾아간 곳은 우에노에 있는 모국방문위원회라는 곳이었다. 위원회라고 해야 사무국장만이 항상 사무실을 지키고, 책상 하나에 소파 하나가 있는 작은 방. 처음 상담했을 때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대신에 기부금이란 걸 받았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30~40만엔이지만 동일 씨는 학생이므로 4만엔을 주었다고 한다.

모국방문위원회를 통해 그는 '더러운 사람들'을 경험했다.

"그들은 40년 이상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용해서 개인 주머니를 불리고 있으며, 그 돈의 일부는 영사관 공무원에게 뇌물로 들어가고 있는 더러운 사람들이지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까지 그가 굳이 한국을 찾았던 것은 무엇일까.

한국은 아버지의 고향이었다. 돌아가신지 16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자신에게 조선적을 남겨준 아버지의 여정을 한 번 밟아보고 싶었다.

제주→광주→목포→일본. 아버지의 여정은 이러했다. 4.3 사건으로 친구 넷과 광주로 피신해 온 아버지는 6개월 동안 어느 집 지하에서 숨어 지냈다. 해가 바뀌어 설이 다가오자 그들은 "이제 되었겠지"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는 병들어 있던 친구를 돌보기 위해 그대로 남고, 두 친구만 제주로 돌아갔다. 이것은 운명을 갈라놓았다. 제주로 들어갔던 친구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고, 나중에 고향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소식을 전했다. 그날로 경찰에 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아버지는 그 길로 목포로 가서 일본행 배에 몸을 실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동일 씨가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다. 아

야 10촌만이 남아 있다. 그 친척들마저도 4.3으로 제주를 떠난 아버지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동일 씨는 제주의 할아버지 산소를 찾을 생각이지만, 친척 신세를 지지 않고 혼자 산소를 찾아 나설 생각이다. 이렇게 변변이 정붙일 사람도 없는 고향, 그래도 아버지의 고향은 자꾸만 동일 씨를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아버지는 평생 총련에서 일했다. 30년 동안 마지막 4년을 제외하고는 월급이 없는 자원봉사자로서였다. 그런 아버지를 동일 씨는 잘은 이해할 수 없다. 다만 나름대로 짐작할 따름이다.

"아버지는 공화국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자기 가족을 죽인 남쪽 정부를 반대한다는 생각에서 총련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말하는 조선인은 공화국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며, 설령 공화국을 말한다 해도 아버지의 고향은 제주도이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들은 제주는 돌 위에 초가집이 있는 50년 전의 전설 같은 고향이었는데….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 같아요. 젊은이도 일본 사람들과 점점 비슷해져 가고, 한국만의 특색이 점점 없어져 간다고 할까…" 그 점이 안타깝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데 좀더 강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었다.

한국까지 오는 먼 길

2000년에 그는 한일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국의 시민단체의 초청으로 한국을 올 수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재일동포와 본국 청년의 교류행사를 추진한 시민단체의 초청에 의해서였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그는 중요한 역할을 짊어졌었다. 도쿄에서 약 10명의 조선적 전문팀을 구성하는 것. "한국적을 가진 동포는 한국에 가기도 쉽고 모이기도 쉽지만, 조선적은 개인개인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에 가기 어려울 것이라

뉴스초점

"국적 안 바꾸는 사유 써라"
재일 한국영사관의 조선적 인권침해 논란

"재일 한국영사관은 조선적에 대한 국적 전환 요구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국내 시민단체가 재일영사관의 부당한 임권침해 문제를 제기하여 주목받고 있다. 조선적의 자유왕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킨(지구촌동포청년연대, 약칭 KIN)이 논평을 내고 "재일 한국영사관이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해 찾아오는 조선적 동포에게 한국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그간 국적전환 요구를 관행적으로 자의적으로 행해온 '신분을 밝히지 않는' 영사 관계자를 문책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적 바꾸지 않는 이유 적으라" 요구

킨은 지난 11월 재일동포청년들을 초청하여 한국청년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열었다. 그런데 킨이 초청한 조선적에게 재일 영사관이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서면으로 "한국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라"했으며, 인터뷰에서는 "인도적인 이유에서 1-2회 방문은 가능하나 국적전환이 없다면 영원히 한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며 협박성의 말을 했다고 한다. 또 "체류기간을 현지 영사관이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가족관계, 혹은 신원진술서를 자세히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통제를 하였다"고 킨은 전하고 있다.

킨은 이미 외교통상부와 재일 영사관에게 조선적에게 국적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국적전환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재일 영사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재일 영사관이 여전히 국적 전환 요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년간 '총련계 재일동포'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면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왔다. 이것은 총련계를 포함한 조선적을 일본내 무국적자 지위를 적극 인정한 결과이다. 무국적자에 대해 한국정부는 1962년 국제인권협약의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협약'에 따르고 있고, 또 남북교류협력법 제 10조에 명시되어 있다. 무국적자 조선적의 임시여행증명서 발급은 정부부처 담당자와 일본 현지 영사관에서 선심 쓰듯이 주는 것이 아닌,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의무이다는 것이다.

국내법과 국제 인권법에 위반

킨은 '재일 영사관의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국적 전환 요구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제인권기구와 국내 사회 단체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여 향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제기구와 국내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대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

배덕호 사무국장은 "국적전환 요구는 제2의 사상전향 강요와 같다. 과거 총련 민단으로 나뉘어 이데올로기 대립을 하던 시대에 행해지던 것이 시대가 바뀌었어도 아무런 반성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조선적을 가진 재일동포를 북한국적의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조선적 가운데 총련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등 친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비교적 많은 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엄밀하게 보아 조선적은 무국적자이다.

판단하여 동경에서 전문팀을 만들자는 생각이었어요."

그가 모집했던 사람 10여 명 가운데 결국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국가 보안법이었다.

"대부분이 국가보안법은 괜찮은가 물으며 불안해 했어요. 특히 가족 가운데 한국적이 없는 사람은 더 불안해 했지요."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그들은 심정적으로도 매우 복잡해 했다. "재일교포는 한국에 어느 정도 애정과 의심을 동시에 품고 있어요. 우리는 나라에서 버린 사람들인데, 과연 한국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지요."

총련 조직과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가족에게 영향이 갈까 두려워하는 사람, 마음을 결정하고 영사관에 전화 통화를 시도하다 대기 중 멜로디만 30여 분 동안 듣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었다.

영사관에서는

그는 한국에 올 때마다 영사관을 들른다. 임시 입국허가증을 받기 위해서이다. 영사관에 갈 때마다 동일 씨는 기분이 언짢아진다.

렇게 말하도록 위에서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똑 같이 국적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지요. 영사관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명확히 모르고 있거나,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조선적으로서 이런 불편을 겪어온 동일 씨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한국에 유학온 친구가 자기 이름으로는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야 했다는 것이다. 영사관에서는 한국적으로 바꾸면 모든 게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하였는데, 막상 한국적을 가져도 핸드폰 하나 제 이름으로 개통할 수 없다니….

일본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일

일본에서 조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일본 보육원에서 조선학교로 진학해 다니다가 일본고등학교로 진학한 동일씨. 조선학교 동창생 가운데 일본학교 간 사람은 단 3명. 그러나 일본학교를 졸업한 건 동일 씨뿐이다. 한 사람은 조선인이 싫다는 동급생을 때려 퇴학당했고, 나머지 한 친구는 조선사람이 싫다는 교원을 때려 조선학교로 돌아갔다.

동일 씨 역시 이지메를 경험했다. 학교에서 동일 씨가 지나갈 때면 "가이진(外人), 조센진"하면서 소근소근거리는가 하면, 교실에 들어가면 의자나 걸상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상한 편지가 놓여 있기도 했다. 편지의 내용은 조선으로 돌아 가라든지, 마늘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것들이었다.

들도 있었다. 그들은 시비를 걸어왔다. 시비를 걸어오는 친구들에 대응하기 위해 동일 씨는 조선학교 동창생의 도움을 받아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싸움을 한 이후에는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일본인 학생들과 심정적 교류는 하지 못했어요. 그 이전까지 조센진, 가이진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싸움을 벌인 이후에는 내가 무슨 말을 물으면 존댓말로 대답하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떠저린 외로움 속에 학교 생활을 했다. 동일씨는 지금 그때를 회상하며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대응했어야 하지 않을까 반성도 해본다. 좀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씩 이해를 시켰었으면 하는 다른 가능성이다. 그랬다면 고교 시절이 그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선적 자유왕래 위해

한국에서 지내는 3주일 동안 동일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조선적의 자유 왕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 단체에서 보내고 있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적이 한국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제한 없이 한국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제도를 바꾸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선적으로 한국을 오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전례를 많이 만들면 제도를 바꾸는 데 힘이 보태진다고 봐요. 정부가 손 대지 못하는 부분도 시민 단체의 교류나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